

# 한국을

아사카와 다쿠미의 삶과 사랑

# 사랑한

백조종 편저

# 일본인

부코(주)

[www.booko.kr](http://www.booko.kr)

편저자 | 백 조 중

출판 등록번호 | 제22-2190호

출판 등록일자 | 2002.08.07

홈페이지 | [www.booko.kr](http://www.booko.kr)

트위터 | [@www\\_booko\\_kr](https://twitter.com/www_booko_kr)

전화 | 010-5575-0308

팩스 | 050-5575-0308

메일 | [bookian@paran.com](mailto:bookian@paran.com)

주소 | 우)120-818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68 부코빌딩 5층

이 책을 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Copyrights © All rights reserved.

제목과 부제는 앞표지에 있습니다.

발행일과 ISBN 은 앞표지 날개에 있습니다.

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6. 명예롭지 않은 문화유산

이나가 시게미稻賀繁美  
(국제 일본문화 연구센터 교수)

### 신축청사를 싫어한 일본인

1922년 6월 4일, 일본강점기 경성에 있던 아사카와 다쿠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무렵 조선에 신사(神社) 건설이 추진되어 광화문 철거가 화제가 되고 있던 시기의 일이다.

「조금 내려가면 조선 신사(神社) 공사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성벽이 부서지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문은 제거되고, 어울리지도 않는 승상을 강제하는 것 같은 신사 등에 거액의 돈을 써서 건설하는 공무원 등의 속을 알 수 없다. 산 위에서 보면 경복궁 내의 신축청사 등 정말로 바보스러워서 화가 난다. 백악산(북악산 · 오늘날 청와대 뒷산)이나 근정전이나 경희루나 광화문 사이에 무리하게 강제로 벌리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은 뻔뻔스럽고 얼굴이 뜨겁다. 그들 건물의 조화를 깨고 아무래도 심술궂게 보인다. 백악산이 있는 한 영구히 일본인의 수치를 보이고 있을 것 같게도 보인다. 조선신사(神社)도 영구히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의 융화를 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는커녕 앞으로 또 하나의 문제의 표적이 될 것이다.」

‘경복궁 내의 신청사’란 건설 중인 조선총독부청사를 말하

는데, 이 신청사의 축조결정에는 조선총독부 데라우찌寺内총독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한다. 건축은 독일인 건축가 게오르게 데 라란데(George de Lalande : 1872-1914)의 기본설계에 서양식 4층 중앙에 높이 5~6미터의 둥근 지붕을 덮는다. 라란데가 죽은 후 노무라 이치로野村一郎、구니에 하다카国枝博등이 이어 10년이란 세월이 걸려 건축되어 1926년에 준공되었다. 일본 패전 후 미점령군에 접수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선언도 여기서 하였다. 그 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중앙관청인 중앙청으로서 사용되었고 최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서 사용되었지만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해체가 결정되어 1995년 8월 15일을 기해 물리적으로 소멸했다. 2010년 여름에는 광화문도 본래의 위치에 복귀되어 왕궁은 1세기만에 일본지배 이전상태를 회복했다.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는 일본통치의 부(負·짐지다, 빚지다, 마이너스)의 유산을 일소하는 정치적 의사의 관철이었다. ‘역사적 유적으로서 보존해야만 한다’라는 논리는 민족적 굴욕의 상징을 옹호하기에는 불충분했다. 굴복의 치욕을 말끔히 씻어버리기에는 그 상징은 모름지기 소멸되어야 한다. 이 민족주의적 정론에 대항할 정책이념은 한 가지만 있을 것 같다. 즉, 민족적 치욕을 영원히 기억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도 ‘총독부청사를 감히 존속시키는 것에는 역사적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실제로는 198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으로부터 구충

독부청사에 옮겨졌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목전에 국립박물관의 거취에 대해 갖가지의 논의가 일어났다. '새로운 박물관을 별도 건설하는 편이 이 대리석의 건조물을 이축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라는 견적도 나와 예산 긴축의 필요라는 재정상의 요청이 우선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광복 50주년」이 일정표에 올라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이 제안되고 때마침 반일의식이 높은 가운데, 「경복궁은, 원래의 형태를 되돌림으로써, 한민족의 정신을 회생하는 것이 된다.」라는 주장이 공식견해를 점하고 있었다.

### 문화유산의 훼손은 만행인가?

일본측 반응을 보면 어떠하였을까. 물론, 한국측 정부결정을 '문화재 경시'라고 보아, 이것을 서슴지 않고 비판하는 논조도 보였다. '문화재 훼손을 싫어하지 않는 한국'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은근히 이웃 나라의 야만을 시사하는 것과 통한다. 문화재 보호를 호소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관계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 비정치적인 우려 표명에는 한국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반쯤은 몰지각한 차별의식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총독부청사 건설이란 것이 한반도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횡포였다' 라고 하면 그 하수인인 일본인의 후예에게 총독부청사 보존을 호소할 권한 등은 원래부터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 '문화재보호라는 명목을 꺼낸다는 것

은 기만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파괴 철거해야 할 문화재와 부흥시켜야 할 문화유산을 준별해서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일까?

한편, 지난날의 식민지 지배자가 그 죄악을 속죄해도 불충분한데 인류적인 우위에 서서 문화유산 보호를 주장하는 등 오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인에게 그런 거만함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인에게는 속죄의 권리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 한국과 조선측에만 일본을 단죄할까 어쩔까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라고 추궁하는 논의도 있겠다. ‘가해자를 벌할 권한은 피해자에게만 속한다’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해자를 자칭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권한을 독점해서는 위험하다’ 라고 자중을 요청하는 것 같이 각성시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논의가 여기까지 오면 어찌 되었건 일본에서 끼어드는 것은 일절 필요 없는 것이 되겠다.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이 바미안 석굴 불상을 폭파한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자. 여기서도 ‘폭파는 문화재에 이 유 없는 파괴행위로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힐난하는 사람, ‘역사적 유산 파괴’에 개탄하는 사람 등이 나타났다.

혹은 반대로 탈리반에 동정을 표해 이슬람원리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부터, 다신교나 우상숭배에 불관용을 정당화하

는 논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재보호를 주장하는 서구측의 식자'를 영미패권과 동일시하여 그런 약탈자에 의한 세계지배와 착취를 규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등은 파괴해도 상관없다' 라면서 공공연히 탈리반의 만행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소 비꼬아 말하면 바미안 현지 주민에게는 벌써 몇 세기 전부터 높이 50m를 넘는 석상을 남성상, 대칭을 이루는 상을 여성상으로 믿고, 그것이 불교 유적인 것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탈리반이 이것을 불교 유적으로서 간주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슬람 부흥운동이 이 지역에서 국제정치를 대변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은, 바미안 석굴 불상이 무가치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파괴행위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성상(聖像) 파괴주의자가, 성상의 마술적 효능을 믿으며 파괴를 주장함에 한해서 실은 성상옹호주의자의 이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 유산의 치욕과 소멸의 영광

그런 가운데 '바미안 불상은 스스로의 치욕에 참을 수 없어서 스스로가 붕괴되었다' 라는 예상외의 식견을 나타낸 이가 이란의 영화감독 마흐바르하브였다.

서양열강의 식민지주의의 완충지대로 이용되어 소련의 침공에 이어 미국군에 의한 폭격이나 소탕의 무대가 되어 가혹

한 쓴맛을 맛본 아프가니스탄 밖으로부터 꼬드겨진 부족 간  
항쟁 위에,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없는 백성의 희생이  
나더라도 세계의 미디어는 그것을 무시해오지 않았는가. 하  
지만, 세계유산인 부처님이 파괴되었다고 하면 세계는 일변  
해서 이슬람의 야만을 알리려고 큰일인양 사건을 보도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  
은 삼장법사 현장도 본 적이 있는 유적을 희생할 필요는 없  
지 않았을까. 원래부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계에 가  
르침을 펼쳤을 부처님은 스스로 무력함을 부끄러워하고 스스  
로가 붕괴된 것뿐이다, 라고.

「스스로 안치되어 있는 절벽 아래에서 민중이 상처받고  
고통에 신음하고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내려  
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꿈쩍달싹할 수 없는 나의 몸에 수  
치를 느껴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모으려고 기획했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폭파 예고가 나오자마자, 화가인 히라야마 이꾸오(平山郁  
夫)는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재 보호를 호소하는 서명활동의  
진두에 섰다. 하지만, 그런 그가 파괴된 바미안마애불의 수복  
에는 단호히 반대를 표명했다.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석상에서 배우려면 파괴를  
그치게 하지도 못한 인류는 이 무너져 내린 폐허에 스스로의



무력함을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 부(負)의 유산으로 봐야 한다. 수치의 덧칠과 호도하는 것은 논외다.

벌써 수복에 의해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한탄함과 함께 파괴라는 20세기말의 인류사상 치욕의 사적을 그대로 받아들일 각오, 그래서 파괴행위의 장본인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행이라고 추궁했던 자신들을 포함한 부류 전체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거기에 의연하게 표명되고 있다.

여기까지 고찰을 해 본 가운데 다시 경복궁에 되돌아 가보자. 총독부청사는 그 남측입구가 막혀 조망을 할 수 없이 풍수 질서를 의도적으로 교란 당했다(무엇보다도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이 무력함을 스스로가 부끄러워해 총독부청사 스스로가 소멸했다라고 해도 좋다.

식민지 수탈통치의 악의 상징은 민족 독립 회복 반세기를 기해 철거되어 병합 백 주년을 기념하는 해에는 벌써 비물질적인 기억만을 스스로가 부재에 의해 나타내었다.

### 민족의 정수를 연출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 궁전에 남은 집경당을 빌려 조선민족미술관을 개관하는 것은 1924년 4월 9일. 달리 적당한 장소를 얻을 수 없어서라는 설명도 되지만 궁정 부지 내에 특권적인 장소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가 사이트 미노루齋藤実 총독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

으면 얻을 수 없었던 입지였던 것도 복수의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다.

그 반면, 총통부측으로부터 민족이란 문자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야나기가 그것을 거절한 것은 일본 측 민예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나기의 총독부와의 특권적 관계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유로 조선민족미술관의 의도 그것을 식민주의란 이름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과 함께 갓난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내는 류'의 극단적인 규탄이겠다. 하지만, 반대로 민족이란 명칭이 최종적으로 허락된 것을 야나기 측의 공지로서 드러내놓고 칭찬하는 것도 함께 위험하겠다.

그렇다고 이런 해석을 사정을 잘 아는 듯이 논술할 권리도, 역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야나기 무네요시 규탄 논조에 동반자처럼 동조하는 것도, 나아가서는 한국 측의 한의 감정에 이해하는 듯한 동정하는 듯함을 흘려 보이는 것도, 어느 것도 일본국적 소유자에게 안이하게 허락될 것은 아니다.

강점기하에서의 조선에 동정을 보인 일본인의 존재를 현창하는 것은 나쁜 일에 면죄부로서 효용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본지배를 정당화하는 구실에도 이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논자의 입장 positionality를 문제로 하는 post-colonial 연구 시점으로부터 아사카와 다쿠미 업적을 재검토해보면 어떤 시야가 열릴까. 도예수집가인 박병래朴秉來씨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야나기씨나 아사카와 형제

(중략)의 감상적이고 동정적인 주장은 우리 한국인을 일층 비하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더욱이 조선역사가인 니시무라 히데키梶村秀樹도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는 「조선인 이상으로 조선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찬사에는 「어떤 불쾌감이 들 정도로 부자연스러움」이 있어 「예기치 않게 조선인을 알잡아보고 있는 것에 의해 아사카와의 본의에 어긋나 있다」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이 비판을 받아서인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도 이 야나기의 발언을 「펜을 너무 굴렀다」거나, 「붓이 미끄러졌던 것」이라고 못 박으며 변명하고 온당하게 지나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확실히 아사카와 다쿠미가 탁월한 인간성을 발휘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42살의 생애에 요절했지만, 조선 도자기 요지 유적 현지조사의 선구에 섰던 연구자로서 평가는 이미 내려져 있다. 또한, 조선의 요업부흥과 진흥을 향해 구체적인 생각을 간직했다는 것도 사후에 출판된 원고로부터 알려졌다. 뒤에, 서울특별시 교육장이 된 최복현씨는 다쿠미와 사귀는 가운데 자신들이 돌보지 못했던 ‘오래된 것을 사랑한다’든지, ‘잃어버렸던 조선의 미’를 찾아낸 것을 회고하고 있다.

『조선의 소반』에 대해서는 홍순혁(洪淳赫)씨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서평에,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의 조선 미술공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 지식과 경험에 탄복하면서 “그 성

과에 조선인으로서 ‘부끄럽다’는 기분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글로 도자기의 명칭을 정밀하게 기재한 『조선도자명고』가 고전으로서 진귀하게 여겨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식민지주의 언설로서 「민예(民藝)」라고 하지만 그런 배경에는 시인이며 미술평론가인 최하림씨는, 「한국 현대 동양화의 복고성 검토」라는 제목의 저명한 평론에서,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나 아사카와 형제에 아첨하는 논조를 일축한 것이 아니었던가.

최하림의 눈으로 보면 1920년대부터 1930년대의 고미술 붐은 <충실한 생활>이라는 일본인 식민자의 특권계급의 취향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거기에 「최초로 불을 붙인 것이 아사카와 노리다카와 다쿠미 형제(淺川伯教·巧兄弟)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등」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고 자기나 고서화의 진가는, 수장가로부터 알 수 있듯이 金正喜、吳慶錫、閔泳翊、閔泳煥、吳世昌、金容鎮 등 수준 높은 감식안에 의해, 벌써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고미술의 진가를 발견했다」 등으로 선전됩니다만 교만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실태는 결국 「한국 미술의 이해가 없는 그들에 의한 발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최하림씨의 결론이었다.

한국도자는 외국인이고 그것도 반도강점에 의해 식민지배

자로서 군림한 일본인에 의해 평가되었다. 그 때문에 한국도자는 식민지 통치기에 「자발적인 발전」의 계기를 빼앗겨 「강제적인 일종의 역전 현상」을 강요당했다. 일본인이 생각해 추천하여 장려하는 「조선다움」이라는 강제된 틀에 맞춰졌기 때문에 한국도자산업은 내재적 발전이 저해되고 한국도자사도 왜곡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 사관은 식민지배론의 정형이 낳은 해석이겠다.

여기에서 다시 시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돌려보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와 면식이 있는 쿠마라스와미(A.K. クーマラスワミ Coomaraswamy)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영국에서 자라 나중에 보스톤미술관 동양부에서 인도미술의 계몽에 많은 공적이 있는 학구파이다.

벵갈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영국제품 배척(보이콧)이 스와데시(スワデシ Swadeshi)국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1905-1908)에, 쿠마라스와미는 인도미술에 있어서 「본질적인 인도성(인도다움)」 essential Indianness을 제창해, 그레코로망의 규범에는 환원할 수 없는 남아시아문화권 특유의 미술관점에 의한 인도미술사를 구상했다.

그 출발점이 된 것은 민중의 일상생활을 지탱해준 공예제품이었다. 이와 같이 인도에서는, 식민지 지배자인 대영제국의 미술관점과는 이질적인 공예의 미가 탐색 되었다. 그리고 마치 평행하듯이 일본통치하의 조선반도에서는 구미의 가치관과는 이질적인,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등 일상의 공예작품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1925년에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 이념은, 그러한 취지로서 들 수 있다. 전문 감정사의 감식안과는 다른 차원에서 서양미술에는 결여된 미의 생명을 찾아내어 그에 상응한 이론화를 꾀한 것. 거기에 민예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의 구상은 식민지 지배자의 하수인이라고 불려 저도 부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야나기가 주로 아사카와 다쿠미의 인도에 의해 조선의 일상잡기(日常雜器)에 눈을 떠서 획득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민예의 이념은 식민지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일본의 조선강점 없이는 성립하지 않았다. 아사카와 다쿠미도 또한 같은 시대환경을 호흡했다. 아사카와 다쿠미조차도 어차피 총독부의 하수인 식민지주의의 공범자였다” 라고 잘라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의 애국자라고 해도 동시대의 공범자로서의 경계에 자유스러운 이는 한 사람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 식민지주의의 부(負)의 유산을 불식하다

다시 야나기의 「필화(筆禍)」로 돌아가 보자. 만약 실제로 아사카와 다쿠미가 「조선인 이상으로 조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의 국적은 권리문제로서 그에게 「조선인 이상으로 조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더욱 나아가 아사카와가 「조선의 마음」 속에 사는 것이 가

능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아사카와 다쿠미를 현창한다는 것도 비합리적이라. 한국인의 자존심을 기준으로 아사카와 다쿠미를 현창한다는 것은 일본인의 죄악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사카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헛된 아침을 파는 술책이다.

덧붙여서, 일본을 최고로 치는 입장에서 보면, 아사카와 다쿠미의 예는 무모하게도 「토착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동시대의 서구문명인이 아프리카에 동화되어 버린 동료를 gone native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것과 같이.

사람인사이라고 쓴다.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고유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지나쳐 “자기 문화의 진수는 타자가 알 리가 없다” 라고 격벽을 세우고 내부의 순결과 순혈통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경향은, 약자의 입장에 놓인 문화권에 빈발하다. 일본 문화론도 그 하나의 변종이었다. 그것은 서구의 압도적인 충격 앞에 싹튼 과대 망상적인 자기정당화 대항반응이었다.

그 상흔은 일본지배에 의해 한반도에도 남겨졌다. 하지만, 아사카와 다쿠미는 스스로가 조선인의 옷차림을 하고 그러한 것을 모르는 일본 관현으로부터 차별이나 굴욕을 받아도 항변하지 않았다.

현대의 비평용어를 차용한다면 그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의태로 연기가 지나친 도착에 통한다. 박해와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얻게 된 공감에는 국적의 벽을 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여기에서 감정적인 업힘이나 적개심의 심리적인 응어리를 뛰어넘는 실마리의 하나로 소유권에 관한 철학적인 물음을 세워보고 싶다.

가령 「조선인 이상으로 조선의 마음을 안다」는 이웃이 출현한 경우, 그의 국적이 적국의 성질을 가진 사람(敵性人)이었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 「조선의 마음」이 손상을 입는다든지, 그 소유권이 침해된다든지, 그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하는 것일까.

「안다」는 것은 「나누어 가지다」 즉 나누어 가진다는 것도 된다. 모두가 나누어 가짐, 이웃이 소유해도, 그래서 각자의 몫이 줄지는 않는다는 특성을 띄는 소유물.

사전학자 에미루 리토레는 그런 소유물의 하나로서 언어를 상정했다. 그것은 또한, 편협한 민족주의에는 폐쇄되지 않는 「민족의 마음」에도 함께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농림기사를 하며 착실한 그리스도교 교도이기도 했던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 1891-1931)의 몇 살 연하인데, 이 사람도 농림기사로서 이와테의 하나마끼에서 농업지도에 자비의 생애를 관철한 일련종도(日蓮宗徒)인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은하철도999’의 원작자)가 알려져 있다. 생전에는 무명이었으면서 사후 시인이며 동화작가로서 국제적인 평가를 얻은 인물이다. 물론, 그들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식민지하의 일본



에 존재했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식민지주의의 시대가 긍정되어질 이유도, 자원수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기를 돌보지 않는 헌신에는 「민족의 마음」을 「특정의 민족에 고유의 배타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대화 거절의 폐문으로부터 해방되는 지혜가 싹트고 있다. 그 지혜는 국적조항을 방패로 해서 거절하는 것은 치욕을 덧칠하는 이외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식민지 경험에 부의 유산에 구애되어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묶는 과오는 회피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돌아가신지 80년이 지난 지금, 아사카와 다쿠미를 새롭게 현창하는 의의의 한 조각을 거기에 두고 싶다.

이나가 시게미稻賀繁美 - 동경대학 교양학부 프랑스분과 졸업, 동(同)대학원 비교문학 석사, 파리 제7대학 박사, 동경대학 교양학부 프랑스과 조수, 미에대학三重大学 인문학부 조교수, 국제 일본문화 연구센터 교수, 일본의 미술연구자, 비교문화학자,

연구분야는 자포니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측면에서 동서비교 미술사를 연구하지만, 문학,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회화의 황혼繪画の黄金」으로 산토리 학예상, 「회화의 동방繪画の東方」으로 가즈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문화상 수상, 그 외 저서·논문 다수  
번역 : 박성배 - 일본 동북대학 석사, 서울시청 국제교류과(서울도교사무소), 행자부 도교사무소, 현 아사카와 다쿠미 현창회 사무국장.